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전망과 반대로 가는 달러..차트로 보는 향방은?
 - ◇ (칼럼)-'쓰레기 채권 시대'의 달러와 비트코인
 - ◇ (초점)-국고 10년/30년 커브 이유있는 역전..'개입 필요' VS '필요 없다'
 - ◇ (초점)-외인 배당 역송금 시즌 임박..예년 보다 규모 급증해 파장 주목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총격 살해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백악관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조기를 게양했다. (로이터/카를로스 배리아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1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30.6	0.3%	-3.9%	+6.5%	유로	1.1903	-0.4%	-2.6%	+8.9%
100엔 대비	1,036.8	0.5%	1.4%	+1.1%	엔	108.87	0.1%	-5.2%	+5.2%
유로 대비	1,344.0	1.0%	-1.3%	-2.3%	위안	6.5060	-0.2%	0.3%	+6.7%
위안 대비	173.42	0.6%	-4.1%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2,627.97	-0.5%	6.6%	+7.2%
코스피	3,039.53	-0.5%	5.8%	+30.8%	나스닥	13,215.24	-0.8%	2.5%	+43.6%
코스닥	952.11	2.9%	-1.7%	+44.6%	S&P500	3,913.10	-0.8%	4.2%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88.05	-1.5%	3.9%	+19.8%
국고채 3Y	1.146%	-7.7bp	17.0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578%	-1.8bp	24.3bp	-14.5bp	미국채 2Y	0.153%	0.4bp	3.2bp	-144.0bp
국고채10Y	2.099%	0.7bp	38.6bp	+3.0bp	미국채 10Y	1.730%	10.5bp	81.8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1.42	-6.4%	26.6%	-20.5%	한국 5Y	19.7bp	-1.7bp	-2.3bp	+0.1bp
금(현물)	1,744.74	1.1%	-8.0%	+25.0%	일본 5Y	15.1bp	-0.1bp	0.1bp	-4.5bp
TR상품지수	2,756.75	-2.2%	2.9%	+7.8%	중국 5Y	29.2bp	-3.1bp	1.2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22일(월)>

- 관세청, 3월 1-20일 수출입 동향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5:00)

<23일(화)>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한은, 2020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12:00)

<24일(수)>

- 한은, 2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부총리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참석
- 금융위, 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참석(10:00)
- 금감원, 2020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12:00)
- 금감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19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12:00)
- 한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BOK 이슈노트 2021-3)(12:00)
- 통계청, 1월 인구동향 및 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5일(목)>

- 기재부, 부총리 무디스 연례협의(16:30)
- 한은, 금융안정 상황(3월)(11:00)

<26일(금)>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7:30) 및 1차관 브리핑(10:30)
- 기재부, 「한·중·일 재무 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 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09:00)
- 기재부,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 한은,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국민연금,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1년도 1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국민연금기금운용 리밸런싱 체계 검토(안) 심의 등)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22일(월)>

- 중국, 3월 대출우대금리 (10:30)
- 유로존, 1월 경상수지 (18:00)
- 미국, 2월 전미활동지수 (21:30)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BIS 이노베이션 서밋 참석 (22:00)
-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 (23:00)

<23일(화)>

- 미국, 2월 건축허가 (21:00)
- 미국, 4분기 경상수지 (21:30)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3월 비제조업 경기전망 서베이 (21:30)
- 미국, 2월 신규주택 판매 (23:00)

<24일(수)>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 (01:00)
- 일본은행(BOJ), 1월 20-21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8:50)
- 일본, 3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3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2월 내구재주문 (21:30)
- 미국, 3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 (23:00)
- 유로존, 3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25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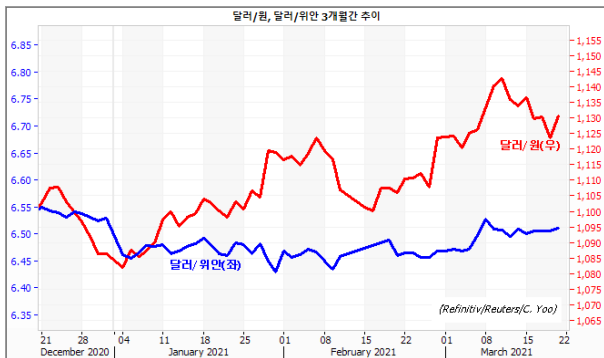
- 유로존, 2월 총 유동성(M3) 증가율·가계대출 (19:00)
- 미국, 4분기 기업이익 잠정·GDP 확정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3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26일(금)>

- 일본, 3월 도쿄 CPI (08:30)
- 미국, 2월 도매·소매재고 (21:30)
- 미국, 2월 개인소득·근원 PCE 물가지수 (22:30)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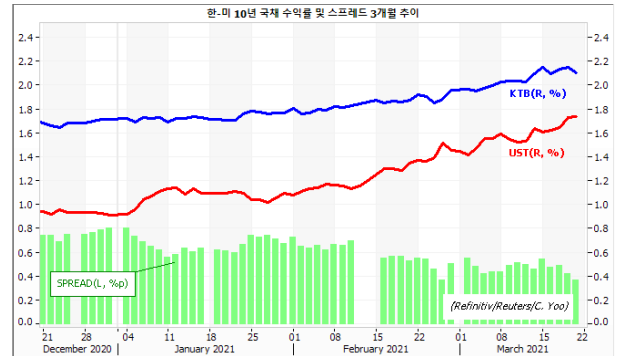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에도 달러/원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과 이에 따른 대외 금융시장 반응에 초점을 맞춘 채 등락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20-1145 원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과 미국 경제 차별화 전망이 글로벌 금리 변동성을 자극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하루가 멀다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서는 등 명확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방향 자체와 상승 속도에 대한 시장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국내외 금융시장은 금리 변수에 우선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이번 주초와 주말경 국제결제은행(BIS) 컨퍼런스 연설과 의회 증언이 예정돼 있고,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연준과 시장의 팽팽한 기 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연준은 시장 기대와는 달리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조치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번 주에 있을 미국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다.
- 다만 미국 채권 금리에 대한 완화 민감도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도 살짝 엿보이는 가운데 달러/원 상단 저항은 이전보다 두터워질 여지도 있다.
- 물론 결제수요를 비롯해 다양한 수요들이 여전히 달러/원 하단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다.
- 이번 주 주목되는 국내외 경제지표로는 관세청이 발표하는 이달 20일간 수출입 잠정치, 그리고 3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와 2월 개인소득 및 소비지출 등이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 조치 종료에 따른 패닉과 한국은행의 시장개입 조치 사이에서 적정 금리대를 모색하려 시도할 전망이다.
- 미국 연준이 예상을 깨고 미국 대형 은행에 적용하던 SLR 규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 연준이 이번에 SLR 조치의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 은행들은 그만큼 미국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 23일과 24일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과 상원 코로나 19 지원책 청문회에서 이렇다 할 시장 안정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채금리가 또 한 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자칫 연말쯤 도달할 것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 10년물 2% 시대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 26일 발표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변수다.
- 주초에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채시장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상황에서 한은의 개입이 얼마나 시장 안정 효과를 보여줄지 두고 볼 일이다.
- 국내 시장 참가자들은 신흥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러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브라질이 6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터키와 러시아가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 이같은 흐름은 과도하게 무거운 단기물 포지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칼럼)-전망과 반대로 가는 달러..차트로 보는 향방은?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 - 연초만 해도 대세였던 약세 전망과는 반대로 달러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 분석 결과 달러는 향후 작년의 13% 하락분 가운데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전부까지도 만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트로 보면 작년 달러지수의 하락은 규모, 기간, 패턴 등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뒤 반등했던 2017년과 비슷하다. 당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달러지수는 지난 1월 34개월 만의 최저치를 저점으로 반등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달러의 이런 기술적 강세 가능성은 이달 들어 커졌다. 금리 움직임, 과도한 달러 약세 베팅,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부양책과 백신 접종 가속화 등 거시경제적 요소들이 이를 더욱 뒷받침할 것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차트 패턴과 과거 가격 움직임 등을 토대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

분석 결과 지난해 3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달러 약세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달러 약세 사이에는 약세 기간(10~13개월), 최고-최저 차이(13~15%) 등에서 유사점이 발견됐다.

금융시장의 상승·하락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 기법인 엘리어트 파동 측면에서도 유사점이 파악된다.

이 기법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 작년 달러 약세 같은 추세가 변곡점을 맞는 시점을 알 수 있다. 추세 전환은 상승·하락 사이클에서 주요 기술적 지지선이나 저항선 돌파가 확인돼야 하며 그 후에도 기술적 지정도 넘어야 확인할 수 있다.

달러지수는 지난 5일 첫 번째 주요 목표선인 91.737을 돌파했고, 이제 회복세를 확정 지을 다음 지점인 94.745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18년 달러 반등 시기에는 이런 주요 추세선 돌파에 5주일이 걸렸다.

달러 반등 추세가 굳어지면 다음은 피보나치 50%, 61.8% 되돌림 수준인 96.098과 97.725가 될 것이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트레이더들이 주요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적 지표로,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주요 수준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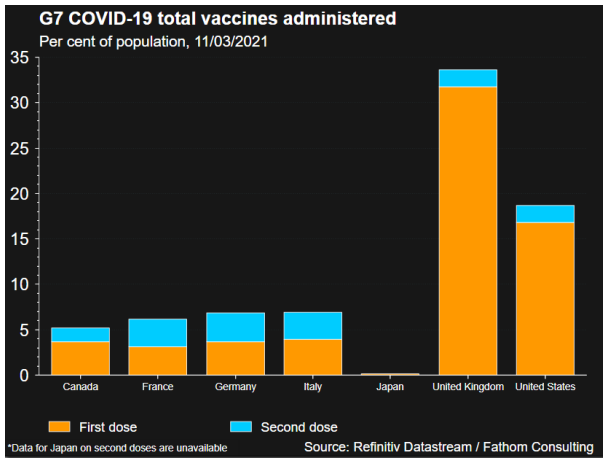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가 2018년 당시 반등 유형을 따른다면 판데믹에 따른 낙폭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차트가 항상 되풀이되지는 않기에 달러가 2018년과 똑같이 움직이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간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달러는 상승했지만, 수익률 상승세 둔화 조짐이 보이면 달러 상승세도 힘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경제는 성공적인 백

신 접종 실시로 판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하며, 이는 국채 수익률을 지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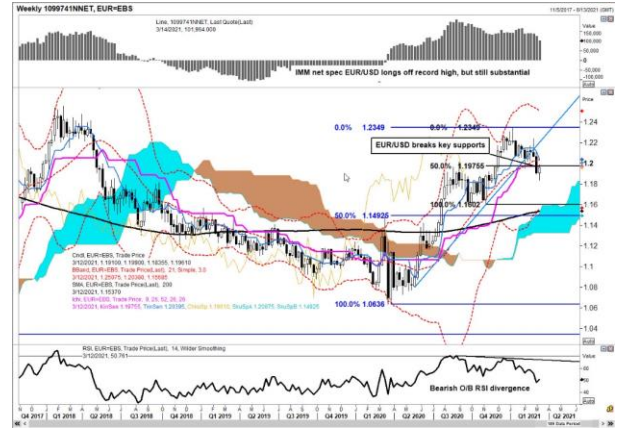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 상승에 우호적인 또 한 가지 요인은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달러 약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서 달러가 추가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주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투기 세력의 주요 10 개국 통화 대비 달러 순 숏 포지션은 거의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뒤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환 전략가들은 대체적으로 달러 약세를 전망하고 있다.

달러지수의 주요 구성 요소인 유로 대비 달러 숏 포지션은 지난 8월 사상 최대치인 313억달러를 기록한 뒤 축소돼 왔지만, 3월 9일 현재 여전히 156억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018년 4월 유로가 15% 약세장에 진입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칼럼)-'쓰레기 채권 시대'의 달러와 비트코인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 2011년 미국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행사에서 워렌 버핏은 "미국은 우리 통화(달러)로 채권을 찍어내는 한 절대 부채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걱정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던 시점이었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버핏의 우려는 타당해 보인다.

그는 화폐의 가치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채권이나 예금처럼 약간의 이자만 받을 뿐 큰 틀에서 가격이 변하지 않는 자산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높은 구매력을 얻기 위한 행위를 투자라고 봤을 때 당시 채권을 사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달러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장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기업체를 사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라는 것이다. 당시 그는 10개월 후의 주가는 모르겠다면서도 10년 후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후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진 않았지만 10년이 지나 돌아보니 미국의 주가는 당시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이 기간 채권이나 예금으로 자산을 굴린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2021년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연례 주주 서한에서 버핏은 다시 한번 "지금은 채권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렌 버핏의 통찰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예년처럼 뜨겁진 않지만 그의 발언에 담긴 함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도 채권 투자에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레이 달리오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채권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익률을 올리기보다는 물가상승률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익을 내는 무엇이든 사라"고 조언했다.

그는 "채권에 투자하는 건 멍청한 일"이라며 "달러로 표시되지 않는, 부채와 관계없는 자산을 사라"고 강조했다.

▲ 인플레이션 걱정 말고 즐기라는 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한결같다.

국가가 위험하면 국가부채를 사고, 회사가 위험하면 회사채를 사고, 가계가 위험하면 가계부채를 사는 것이다. 국가와 회사와 가계가 번갈아 가며 위기에 처하다 보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화한 지 1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풀었던 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니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추가로 시중에 풀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하원을 장악한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이미 10년 넘게 진행된 통화 완화 정책에 더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이 가세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새롭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건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유튜브와 트위터, 주식 관련 토크방을 통해 접한 이야기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군단'이 돼 거의 모든 자산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17일(현지시간) FOMC 회의가 열렸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올해 6.5% 성장해 1984년 이후 최대 성장폭을 기록한 후 내년에도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경기 개선 기대 속에 물가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12월의 1.8%에서 2.4%로, 내년 수치는 1.9%에서 2.0%로 올려잡았다. 근원 PCE 물가지수 상승률 예상치는 올해 1.8%에서 2.2%, 내년 1.9%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하더라도 통화정책을 되돌리지 않겠다며 시장 안정에 집중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위로 크게 올라도 눈도 깜빡하지 않겠으니 걱정 말고 파티를 즐기라는 것이다.

▲ 당황스러운 미국 국채 투자자들.. '그래도 대안은 없어'

물론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 가치의 절하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관리는 확실히 해줄 것이라고 믿고 미국 국채를 샀는데 인플레이션에 신경 쓰지 말라니 투자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 말이다.

'그래도 미국 국채'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헤지 비용을 감안해 일본이나 유로존 국채를 매입하기보다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게 훨씬 메리트가 크다고 말이다. 레이 달리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실질 구매력을 되찾는 데 미국 국채는 500년 이상이 걸리고 유럽, 일본에서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경험은 현재 글로벌 투자 지형을 바꾸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아직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라도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다.

▲ 비트코인에 점점 더 눈길이 가는 이유

일시적이든 추세적이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때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커진다.

인플레이션 보험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기도 할 것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생각하지 마'라고 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달러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인 캐시우드의 주장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25만달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때 미국 국채시장은, 그리고 달러는 어떻게 돼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초점)-국고 10년/30년 커브 이유있는 역전..'개입 필요' VS '필요 없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글로벌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원화채 시장에 10년물과 30년물 금리의 역전이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심리가 취약한 상황인 만큼 초장기 국고채 커브 왜곡의 시정을 위해 당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과 수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10년/30년 커브 역전..시장 심리 안정 위해 조정해야

18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장내 채권시장에서 국고 10년 2-9는 2.160%, 국고 30년 21-2는 2.135%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과 30년물 수익률 곡선(커브)이 역전된 것이다.

국고채 장기 커브의 역전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커브 플래트닝이 대세로 자리잡았던 지난 2015년부터 2019년에는 매년 하반기마다 초장기 커브 역전이 심화되며 시장에 큰 혼란이 나타났다.

당시엔 단기 딜링 기관들의 대차매도가 문제였다. 30년물의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축소됐다고 판단한 증권사 등 단기 딜링 기관들이 대규모 대차매도에 나섰다가 수요 우위의 수급구조 때문에 되치기를 당하며 손절 장세가 펼쳐지는 패턴이었다.

자산-부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보험사 등 장기 투자기관의 초장기물 매수로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던 게 커브 역전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지금은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커브 스티프닝이 대세로 자리잡은 데다 공급 물량 우려가 크고, 대내외 금리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어 보험사 등 장기 투자기관의 강매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국고채 10년물/30년물 커브 역전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시장 심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관련 포지션의 손절이 이어질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30년물 등의 발행 비중을 확대하거나 한국은행이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채권 커브가 스티프 되는데 그 주체가 10년이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10년과 30년물 커브가 역전되면서 시장 심리가 더 위축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B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처음에 5년물 금리가 튀면서 5년/30년 포지션을 들고 있던 곳들이 손절을 했는데 그게 10년/30년물 커브까지 온 것 같다"며 "지금 10년 쪽이 워낙 취약해 시장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기재부가 10년물 발행을 줄이고 30년물을 최대한 늘려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도 5년, 10년물 쪽으로 단순매입을 해주어야 할 것 같다"며 "기관들의 손실이 자꾸 쌓이면 시장이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0년물 보험사 수요 있어..'개입 불필요'

반면 30년물의 상대적 강세는 수급을 반영한 것인 만큼 인위적인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C 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30년물의 경우 수급이 꼬인 듯하지만 레벨만 역전됐을 뿐 변동성이 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국고채 30년물 입찰 때마다 시장이 계속 크게 흔들리는데 당장 커브만 보고 발행 물량을 늘려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는 고생이겠지만 단기물처럼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기재부가 액션을 취할 정도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D 보험사 채권운용부장은 "요즘에 국고채 입찰 때는 최소로 받고 모자란 건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주의"라며 "입찰 당일날도 오후에 크게 밀릴 때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의 본드 포워드 수요도 적지 않은 만큼 증권사들이 헤지를 위해 3년물을 팔고 30년물을 사는 게 적지 않을 것"이라며 "30년물의 경우 10년물보다 덜 밀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초점)-외인 배당 역송금 시즌 임박..예년보다 규모 급증해 파장 주목

서울 (로이터) 이지훈·박예나 기자 - 국내 상장사의 배당금 지급에 따른 외국인의 역송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배당금 지급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미국 경제 차별화에 따른 긴축 발작 우려가 달러/원 상승 변동성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내달부터 본격 시작될 외국인 배당 관련 달러 수요에 대한 경계감은 크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일회성 특별 배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배당 지급액이 급증해 관련 수급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로이터가 국내 주요 상장기업 중 외인 배당 지급 예상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최대 약 11.6조원 상당의 역송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에 로이터가 추산한 규모 대비 2 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작년에 비해 삼성전자 외인 배당 규모만 약 6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 배당일에 수급 여파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월 본원소득수지내 배당소득은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영향에 4월 경상수지는 31.2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 주요 상장기업 외인 배당 지급 규모와 지급일 (17일 현재)

회사명	예상 외인 배당액	배당 지급일
삼성전자005930.KS	7조7313억원	미정
KB금융105560.KS	4808억원	미정
신한지주055550.KS	4419억원	4/9
SK하이닉스000660.KS	4229억원	미정
LG화학051910.KS	3459억원	미정
현대자동차005380.KS	3065억원	미정
KT&G033780.KS	2647억원	미정
하나금융지주086790.KS	2631억원	미정
SK텔레콤017670.KS	2466억원	미정
포스코005490.KS	1985억원	4/12
삼성화재000810.KS	1910억원	미정
현대모비스012330.KS	1639억원	4/23
KT030200.KS	1550억원	미정
기아자동차000270.KS	1512억원	미정
LG003550.KS	1511억원	미정
한국전력015760.KS	1337억원	미정
총액	11조6481억원	-

* 로이터가 기업 공시 등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합산

* 외인 배당액 규모 1천억원 이상만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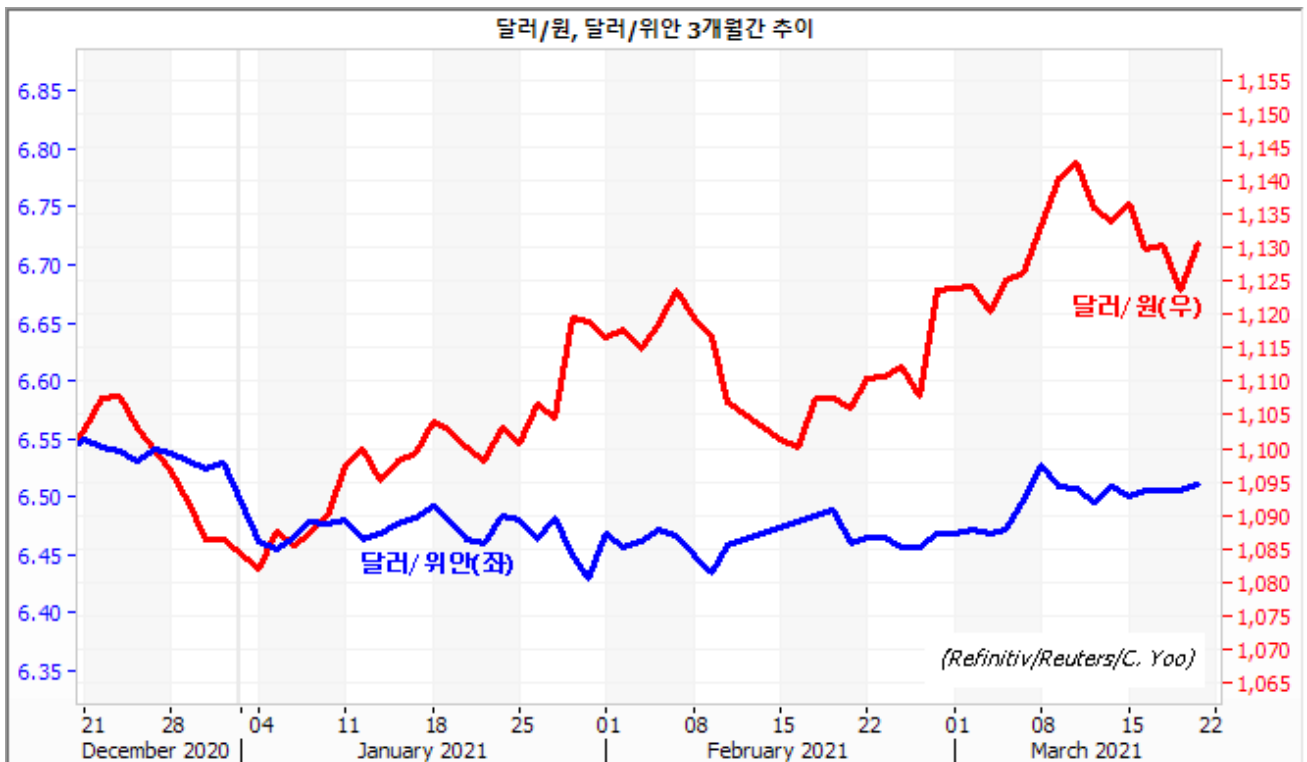
* 배당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배당 지급일 확정될 때마다 업데이트할 예정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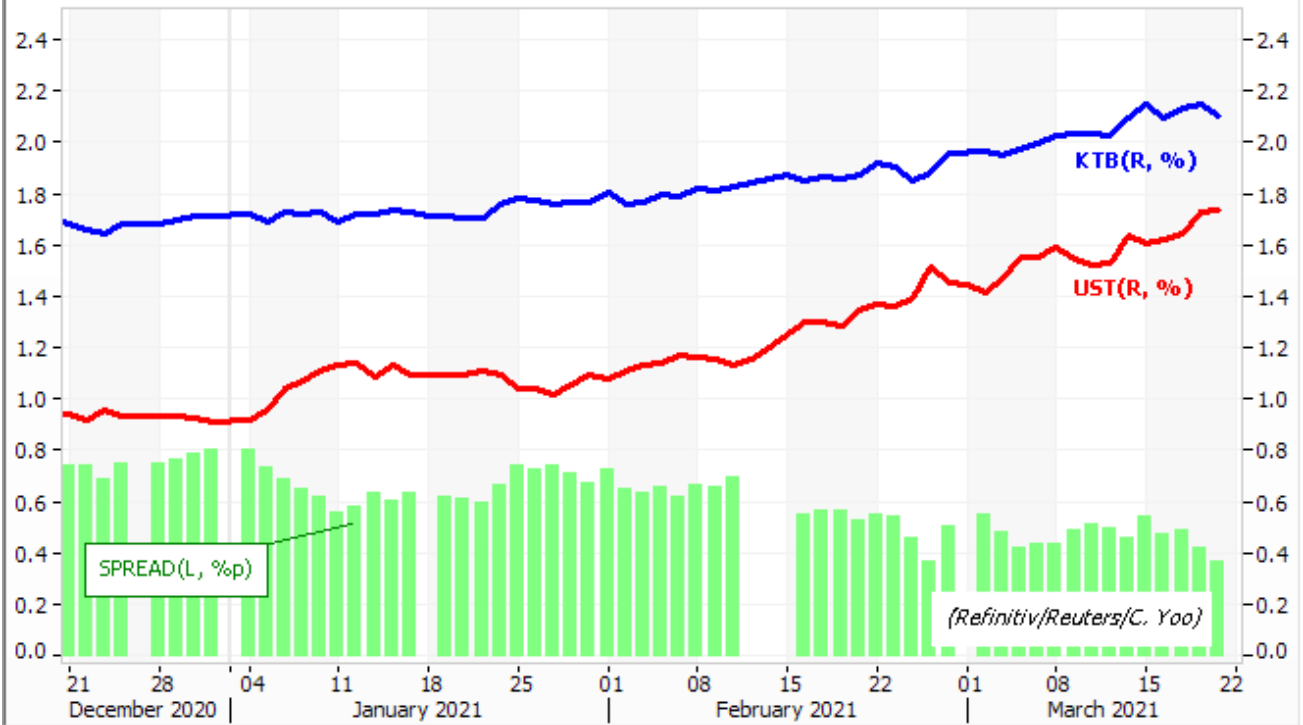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한-미 10년 국채 수익률 및 스프레드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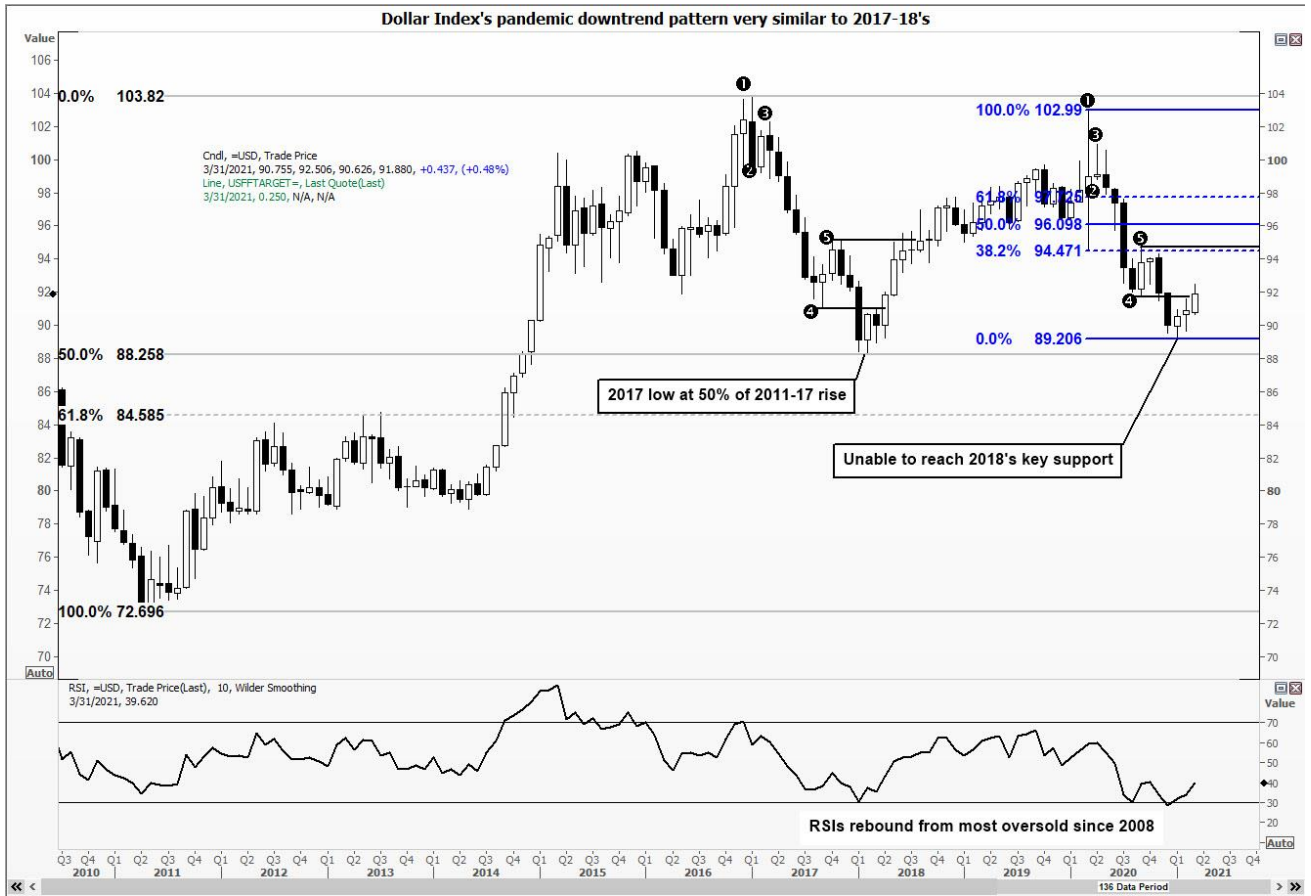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Dollar Index's pandemic downtrend pattern very similar to 2017-18'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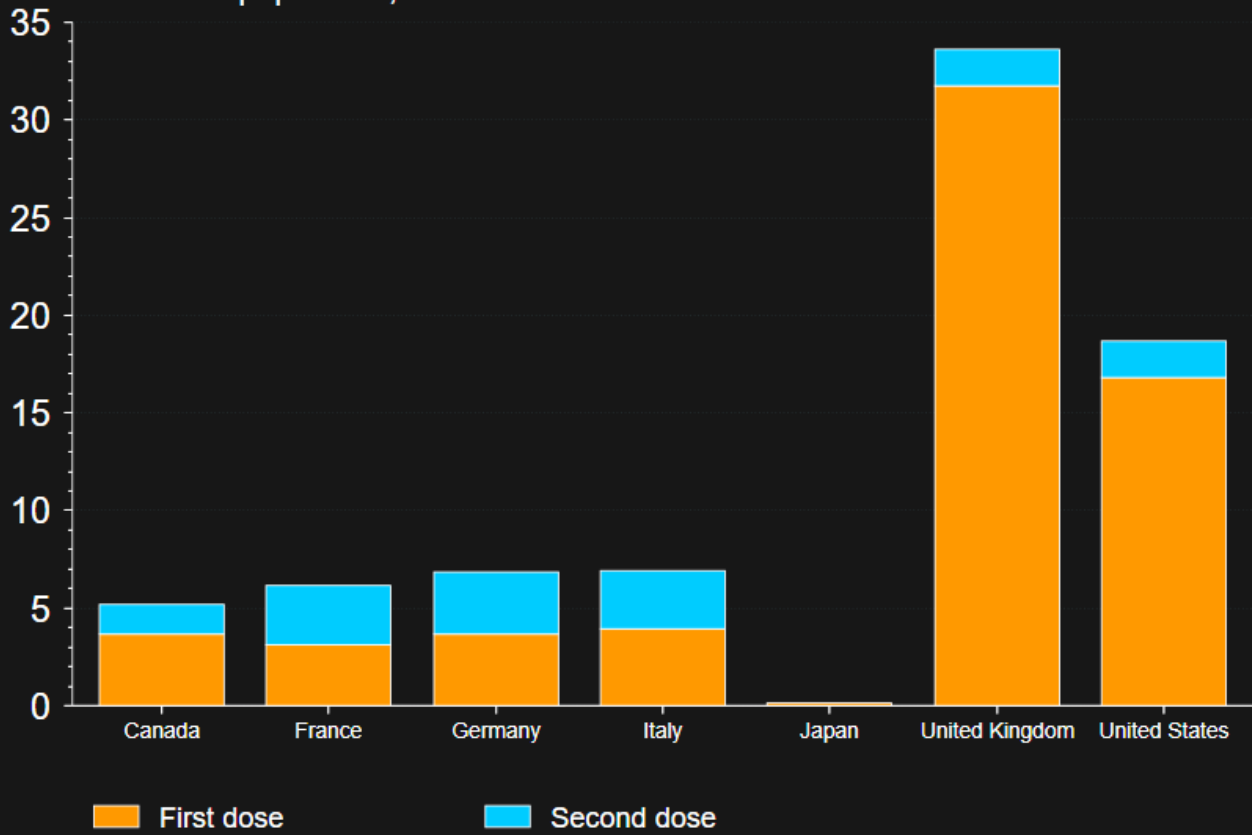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G7 COVID-19 total vaccines administ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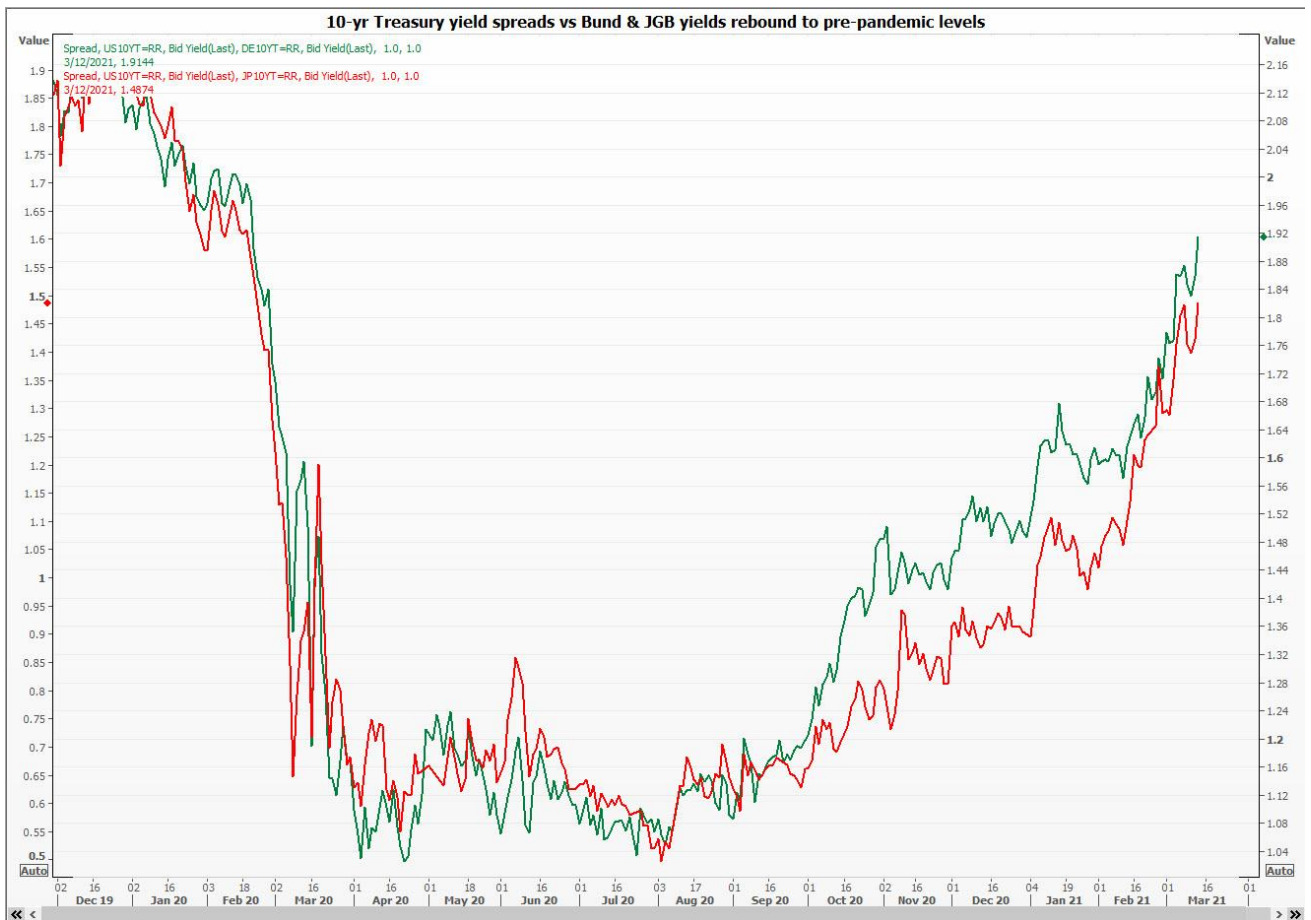
Per cent of population, 11/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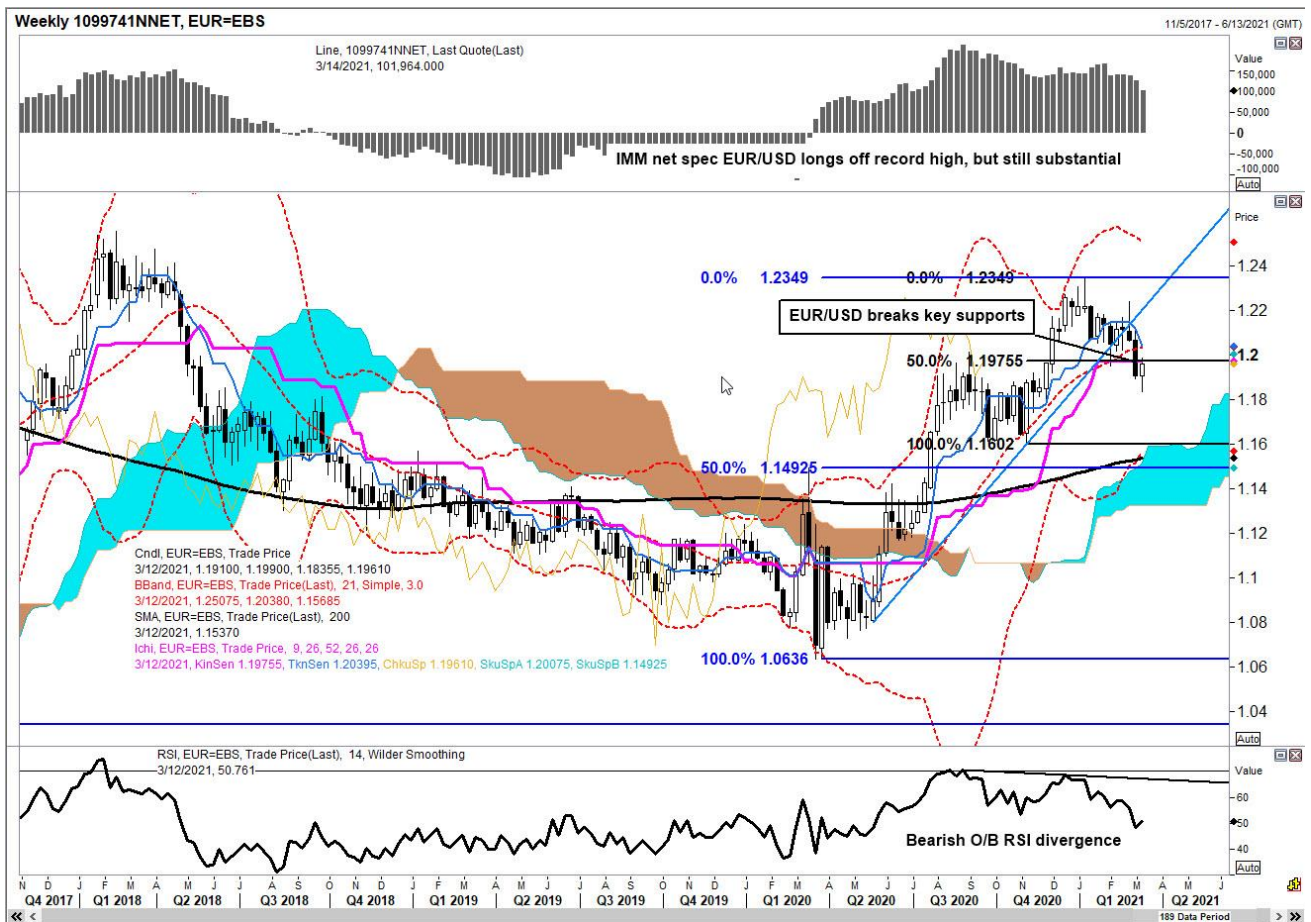
*Data for Japan on second doses are unavailabl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Fathom Consulting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주요 상장기업 외인 배당 지급 규모와 지급일 (17일 현재)

회사명	예상 외인 배당액	배당 지급일
삼성전자005930.KS	7조7313억원	미정
KB금융105560.KS	4808억원	미정
신한지주055550.KS	4419억원	4/9
SK하이닉스000660.KS	4229억원	미정
LG화학051910.KS	3459억원	미정
현대자동차005380.KS	3065억원	미정
KT&G033780.KS	2647억원	미정
하나금융지주086790.KS	2631억원	미정
SK텔레콤017670.KS	2466억원	미정
포스코005490.KS	1985억원	4/12
삼성화재000810.KS	1910억원	미정
현대모비스012330.KS	1639억원	4/23
KT030200.KS	1550억원	미정
기아자동차000270.KS	1512억원	미정
LG003550.KS	1511억원	미정
한국전력015760.KS	1337억원	미정
총액	11조6481억원	-

- 로이터가 기업 공시 등을 토대로 추산한 금액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합산
- 외인 배당액 규모 1천억원 이상만 집계
- 배당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배당 지급일 확정될 때마다 업데이트할 예정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